

## 여러분의 몫입니다.

'무엇인가 담장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있어'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담장 고치기> 중 “무엇인가 담장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있어” 라는 구절은 뉴잉글랜드 지역의 숲과 언덕을 가로 질러 들판과 소유지를 구분짓는 차가운 돌담을 떠올리게 합니다. 돌담은 농지를 조성하면서 캐어낸 돌들을 쌓아 두는 장소이자 동시에 구획과 경계의 표시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돌담들은 서서히 허물어지고 무너져 지금은 이전 돌담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곳이 많습니다. 무너진 돌더미들은 재활용 되기도 하지만, 일부 무너진 돌담들은 그 돌담을 쌓느라 애쓴 사람들의 노고와 노동에 대한 증거로만 남아 있을뿐 본래의 역할을 상실한지 오래입니다.

벽을 쌓고, 경계를 표시하려 했던 이유와 과정에 대한 생각을 하며, 화해와 개혁의 산물로 허물어져 갔던 세계 도처의 벽들을 떠올려 봅니다. 저희 집 주방에는 베를린 장벽의 일부였던 작은 콘크리트 조각이 있습니다. 독일로 여행을 가셨던 아버지와 오빠가 선물로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의 질서와 국가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무시무시한 군사시설물이 작은 조각들로 부서져 관광 상품이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아직도 지속적으로 다른 벽과 울타리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벨파스트의 “평화의 벽”은 가톨릭 거주지와 개신교 거주지를 거리 양쪽으로 갈라 놓고 있으며, 양측에서는 의도적으로 계획된 행사나 중간 지대에서만 제한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벽은 어릴 적부터 서로 다른 학교의 교복과 일정, 전통 그리고 공포로 분리되어 서로를 모르는 채 자라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남부 멕시코 국경지대에는 이전에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던 도로들은 폐쇄되거나 검문소를 통해서만 왕래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포와 법과 폭력은 상호 교류와 이해를 막아서는 더 큰 장벽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서로가 단절되고 분리되는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그리고 이같은 분리로 인해 경제적인 이윤을 얻는 집단들은 공포, 정책, 협박, 회유 등을 통해 물리적인 경계선을 세우고, 분리와 불신을 강요하며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영향을 받기 보다는 더 많은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영향을 받으며, 사람들을 분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그들의 공통 관심사에 주력하는 것이 더욱 유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담장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있어'*. 당사자들은 각각 차분하게 되돌아 보고, 조직을 재정비 하며, 가열된 분위기를 식히기 위한 시간을 갖을 필요가 있겠지만, 단절과 분리가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단절과 분리로는 진정한 평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들은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단의 장벽들을 무너 뜨립시다. 국경과 경계들은 바뀝니다. 동맹들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평화를 꿈꿉시다. 그리고 평화를 위한 새로운 노력을 통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여성국 국장

헤리엇 올슨